

## 중학교에서 고3까지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연구: 4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선아  
승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dolescent Self-esteem, Career Identity, School Learning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Change: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unah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GM) 분석을 활용하여 후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변화모형을 도출하고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동, 성별, 가구소득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들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CPS)의 중1 패널 3차년부터 6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분석 결과, 첫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모형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2차 함수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개인별 차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삶의 만족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존적인 독립변수로는 학습활동이 모든 학년마다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독립적인 독립변수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이 초기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1차변화율과 2차 변화율에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에 따른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입과 함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제안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change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career identity, school learning activity, gender, and household earnings on life satisfaction changes were examined. Data was obtained from th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YCPS), a longitudinal study following students for 7 years. Year 3- 6 data was utilized. Results found that the life satisfaction trajectory resulted as a quadratic model in which individu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Second, school learning activity used as a time variant variable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each year. Third, gender and self-esteem as time invariant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itial levels while self-esteem had effects on the slope and quadratic change. Further implications and research issues are discussed.

**Keywords** :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Career Identity, School Learning Activity, High School, Change

---

Corresponding Author: Sunah Kim(Soongsil Cyber Univ.)

Tel: +82-2-708-7832 email: [sunkim@mail.kcu.ac](mailto:sunkim@mail.kcu.ac)

Received October 1, 2018

Revised October 24,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인간이 계속 추구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보면[1][2]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아동 삶의 질 국제조사에서 실시한 세계 15개 국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행복도, 삶의 만족도 등을 비교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했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한국, 일본, 미국, 인도, 브라질 등 7개국의 13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한국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브라질, 일본과 함께 평균 52%를 밑돌았는데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41.5%로 나타나[2] 우리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그리 높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란,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으로[3][4]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사건들, 사회경제적 환경, 대인관계, 개인의 능력 등을 종합하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1961년부터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 본다[5].

이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만족감이 주관적인 경험이어서 개인외적 요인들보다는 개인내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더 높다고 나타나기도 한다[6][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요인들 중에서 연관이 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동 등이 중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비교적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개인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 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중요요소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7][9].

성인으로서 직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목표, 흥미에 대한 인지 정도를 의미하는데[10],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다[11][12].

학습활동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활동과 적응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연구에서도 학생이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시간이 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14] 한국학생의 학습활동과의 관계성은 더 자세히 살펴 봐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기존연구에서는 성별차이나 가구소득과 관련해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 개인요인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15][16]. 또, 후기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종단분석을 통해 가장 예민한 기간인 후기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학습활동, 성별,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 변화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3차년부터 6차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된 종단패널조사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단기종단 자

료이다[17].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식을 사용해서 전국의 중학생 1학년중 표본으로 78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1개 학급씩 총 2,716명의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정된 표본 중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조사를 진행한 후에 최종 패넬로는 2,056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2 측정변수

### 2.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종속변수로 3·4·5·6차년도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변수를 활용했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다.

###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학습활동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가구소득을 활용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3차년도 Rogenberg[18]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했다. 항목은 총 10개로(‘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 구성되었고,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필요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는 두개의 측정변수로 분류해서 구조모형에 활용했는데 각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활용했다. 각 측정변수는 문항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이다.

진로정체감은 3차년도의 Kong[19]의 척도를 7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다(‘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등).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 였다.

학습활동은 Min[2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했다. 5문항의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 였다. 학습활동은 따로 시간의존적변수(time-variant)로 설정했다. 안정적인 다른 변수들과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다 수업내용, 교사, 활동이 바뀌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21]. 가구소득은 연간 가구소득(단위: 만원)에 대한 응답을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형태와 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GM:Latent Growth Modeling)을 사용했다.

LGM은 잠재적 성장요인 추정을 통해 변수의 변화를 정의하고, 개인의 변화함수와 시간에 따른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또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파악과 집단 차원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변화분석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22].

전체적인 분석은 다음 2단계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첫째,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흐름을 통해서 문제행동의 개인내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을 분석했다. 둘째 단계는 모형에서 각 개인차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후 각 독립변인들을 잠재요인인 초기치와 변화율에 연결시켜, 자아존중감, 학습활동, 진로정체감, 성별,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의 발달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독립변수로 1수준모형에 투입하는 시간의존적 변수(time variant)와 2수준모형에 투입하는 시간독립적 변수(time invariant)로 나누어 분석했다. 여기서는 시간의존적 변수가 그 해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23][24].

$$1\text{단계: } Y_{it} = \eta_{0i} + \eta_{1i}T_{it} + e_{it}$$

$$\eta_{0i} = \beta_{00} + \gamma_{0i}$$

$$\eta_{1i} = \beta_{10} + \gamma_{1i}$$

$Y_{it}$ 는 시점 $t$ 에서  $i$ 번째 개인의 값을,  $\eta_{0i}$ 와  $\eta_{1i}$ 는 개인  $i$ 의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을 의미한다.

$$2\text{단계: } Y_{it} = \eta_{0i} + \eta_{1i}T_{it} + \eta_{2i}X_{it} + e_{it}$$

$$\eta_{0i} = \beta_{00} + \beta_{01}W_i + \gamma_{0i}$$

$$\eta_{1i} = \beta_{10} + \beta_{11}W_i + \gamma_{1i}$$

여기서  $Y_{it}$ 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존적 변수  $X_{it}$ 를 투입한 식은 위와 같은데,  $\eta_i$ 는 독립변수  $X_{it}$ 의 효과를 의미한다. 시간 독립적 변수  $W$ 를 넣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음, 변수의 변화 형태가 이차함수 형태일 경우, 일차함수모형 식에서 일차변화율의 제곱인 이차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Y_{it} = \eta_i + \beta_0 T_{it} + \beta_1 T_{it}^2 + e_{it}$$

$$\eta_i = \beta_0 + \beta_1 W_i + \gamma_i$$

$$\beta_0 = \beta_0 + \beta_1 W_i + \gamma_i$$

$$\beta_1 = \beta_0 + \beta_1 W_i + \gamma_i$$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chi^2$ ,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했는데, 모형 적합성의 판단기준은  $\chi^2$ 은 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이고, TLI, CFI는 .90이상, RMSEA .05이하일 때이다[25]. 결측치는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26].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학생은 1041명 (50.6%), 여학생은 1015명(49.49%)이었고, 가족구성은 부모모두 동거가 82.9%, 한 부모 및 비동거가 17.1%이었고, 가족 연간소득평균은 4818만원이었다. 종교여부는 58.5%가 없다, 기독교(천주교)가 29%, 불교가 11.9%, 기타 .6%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비율은 경기도가 14.5%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가 3.8%로 가장 적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였다.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	2.85	2.82	2.80	2.88	8.30	2.98	2.82	3.05	2.83	2.74	2.78	2.75	2.72
SD	.67	.61	.58	.61	.58	.47	.67	.65	.75	.53	.49	.51	.54

1-4: Y3-Y6 Life Satisfaction, 5: Income, 6-7: self- esteem, 8-9: career identity, 10-13: Y3-Y6 school learning activity,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 3.2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 설정(1수준분석)

가장 적합한 모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2차 함수변화모형으로 설정하여서 모형 적합도

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Table 2>의 결과와 같다.

Table 2.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Structural Model Fit

Model	$\chi^2(df)$	TLI	CFI	RMSEA
Model 1: Non-change model	85.49(8)***	.95	.96	0.064
Model 2: Linear model	95.3(8)***	.94	.95	0.068
Model 3: Quadratic model	36.6(4)***	.96	.98	0.05

\*\*\*p<.001

분석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델보다도 이차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단순한 선형형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곡선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모형은 이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아래<Table 3>를 보면, 최종 모델의 초기치 평균은 2.86으로 변량과 함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가 학생 간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은 -.68로,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만족도가 .68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차 함수 변화율은 .02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만족도 가 중3부터 일정 수준 감소하다가 후반부 시점에 다시 증가하는 이차함수 모형의 형태라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Growth Curve Parameters for Model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Mean	Variance
Intercept	2.86(.014)***	.275(.014)***
Slope	-.68(.016)***	.102(.021)***
Quadratic change	.025(.005)***	.005(.002)**
Intercept- Slope correlation	-.53***	
Intercept-Quadratic correlation	.39***	
Slope-Quadratic correlation	-.92***	

\*\*p<.01, \*\*\*p<.001

분산도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초기치나 선형, 2차함수 변화율에 각각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치와 선형변화율의 상관결과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1차 변화율의 변화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

기치와 이차변화를 결과에서는 초기치가 높고 1차 변화율이 낮을수록 2차 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 3.3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 수준분석)

다음은 연구문제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독립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종모형인 2차 함수에 요인들을 투입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결과, 모형적합도( $\chi^2=625.5^{***}$ ,  $df=57$ ,  $TLI=.89$ ,  $CFI=.94$ ,  $RMSEA=.06$ )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요인들을 포함한 최종 이차함수변화모형은 아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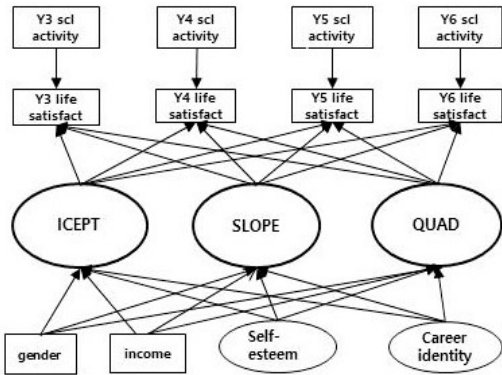


Fig. 1.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Change Model

분석결과에서 먼저 시간의존적인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아래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able 4.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Time variant variables.

Path	$\beta$
Y3 Life Satisfaction <--Y3 School Learning Activity	.127 <sup>***</sup>
Y4 Life Satisfaction <--Y4 School Learning Activity	.186 <sup>***</sup>
Y5 Life Satisfaction <--Y5 School Learning Activity	.197 <sup>***</sup>
Y6 Life Satisfaction <--Y6 School Learning Activity	.198 <sup>***</sup>

<sup>\*\*\*</sup>p<.001

시간의존적인 학습활동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고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각 학년마다의 학습활동이 높을수록 그 해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중학생부터의 학습활동이 긍정적이고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6년차의 고3 학생들이 가장 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도 학교 학습활동을 활발히 하면 오히려 만족도가 연관이 더 큰 것임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입한 시간독립적인 변수들의 관계성 결과는 아래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성별은 초기치가 유의미했고 자아존중감이 초기치, 1차 변화율과 2차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는 남자일 때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인 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큰 부정적 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초기치가 높으면 감소율이 커져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27].

또, 2차 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후반부에 다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치가 높은 학생들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도 다시 크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나 진로정체감은 유의미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내적인 요인에서는 진로정체정보다 개인자신을 존중하는 자아존중의 심리요인이 청소년 후기의 만족도와는 연관이 더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Table 5.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 Time invariant variables.

Var	Intercept	Slope	Quadratic change
Gender	-.110 <sup>***</sup>	-.05	.045
Income	-.031	.074	-.041
Self-esteem	.888 <sup>***</sup>	-.736 <sup>***</sup>	.687 <sup>***</sup>
Career identity	-.021	-.054	.141

<sup>\*\*\*</sup>p<.0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중3부터 고3사이의 청소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모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모형은 2차 함수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3부터 고3까지의 모형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후반부에 다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28]. 본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만족도가 고2 때까지 낮아지다가 고3시기에 높아진 것인데, 무조건 만족도가 낮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진 것은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성숙도나 학업에 특별히 몰두하는 시기상의 변화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족도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닌, 성장하면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 개입의 여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초기치와 1차, 2차 함수 변화의 변량이 모두 유의미해, 삶의 만족도는 각 개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모두 동일하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8, 28]. 따라서 관련연구를 할 때에는 일반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 환경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의존적 변수들의 연구결과, 각 학년도의 학습활동이 그 해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학교 학습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3]. 또,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독특성으로 입시와 학업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시기이므로[29] 학교학습이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고3 학생들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더라도 발달연령이 제일 높아도 시기적으로도 학교학습활동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독립적인 요인들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이 초기치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인 경우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의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데[30] 청소년후기에도 성별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로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만족도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1차 변화율과 2차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지속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일차변화율이 낮고 이차변화율은 높았다. 결국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초기치가 높아서 중3에서 고2까지의 시기는 만족도가 더 감소하지만, 고3 시기에 와서는 다시 증가하고 증가폭이 크다고 해석된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데[24,30], 삶의 만족도에는 자신의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스스로에 대한 보호도 되고 일상에 대해 만족하면서 일관성도 지속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8].

현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했는데 결과에 따라 다음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의하고자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패턴은 단순한 것이 아닌 청소년후기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형이므로 청소년은 무조건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보다 개인적인 차이로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에서는 그 학년도의 학습활동이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으로, 학생으로서의 학교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고학년이어도 학교의 학습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아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격려와 다양한 교수기법, 활동을 연구하면 청소년들의 만족도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주요요인인 자아존중감, 성별을 중점으로 포함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나 활동,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31].

이는 여자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여자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만족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로 현 연구는 특정 패널자료만 활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측정된 변수들이 청소년 자신만의 평가에만 의존했다는 제한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면 더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존의 종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변수측정을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측정할 수 없음이 제한점이다. 차후의 연구로는 청소년후기의 발달단

계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성인초기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자아존중감처럼 강력한 개인외적인 영향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4년간의 종단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들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과 예방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 References

- [1] B. J. Lee, S. S. Kim, J. J. Ahn, J. Yoo, "A Report on Korean Children's Quality of Life", Save the Children, Seoul University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2015.
- [2] The JoongAng Ilbo, [cited 2016 Mar 16] From: <http://news.joins.com/article/19729742>. (accessed Sep. 6, 2017)
- [3] E. S. Huebner.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66, No. 1, pp. 3-33, 2004. DOI: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7.57754.e3>
- [4] C. L. Proctor, P. A. Linley, J. Maltby,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y*, Vol. 10, pp. 583-630,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8-9110-9>
- [5] B. L. Neugarten, R. R. Havighurst,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No. 2, pp. 72-75, 1961. DOI: <https://doi.org/10.1093/geronj/16.2.134>
- [6] E. Diener, M. E. Seligman,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Vol. 13, No. 1, pp. 81-84, 2002. DOI: <http://dx.doi.org/10.1111/1467-9280.00415>
- [7] H. Hwan, Y. H. Kim,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Happiness Determinants among Domestic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7, pp. 1-28,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7.24.7.1>
- [8] S. J. Kim, K. B. Yoon.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7, No. 2, pp. 271-296, 2016.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2.271>
- [9] J.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Rights guarante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2, No. 1, pp. 35-59, 2010.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2.271>
- [10] S. K. Yoo, E. J. Kim,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CESA Core Competencies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 1-26, 2016. Available from: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00496>
- [11] M. R. Park, E. J. Yang,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1, pp. 263-284,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1.24.1.263>
- [12] S. T. Moon, M. H. Park,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riables, Vocation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4, No. 3, pp. 1-22, 2012.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2.44.3.1>
- [13] S. M. Suldo, K. N. Riley, & E. J. Shaffer, "Academic correlat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27, pp. 567-582, 2006. DOI: <https://doi.org/10.1177/0143034306073411>
- [14] OECD. PISA 2015 Results-Students' Well-Being, Paris: OECD, 2017. DOI: <https://doi.org/10.1787/9789264273856-5-en>
- [15] G. McCullough, & E. S. Huebner,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rmally achieving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Vol. 21, pp. 311 - 324, 2003. DOI: <https://doi.org/10.1177/073428290302100401>
- [16] Y. S. Oh, J. Y. Lee, What is Important for the Happi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1, No. 2, pp. 1-31, 2014.
- [17] J. K. Kim, H. J. Paik, H. J. Lim, K. O. Le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2010. NYPI YOUTH REPORT 10-R0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 [1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126/science.148.3671.804>
- [19] I. K. Kong, Effects of Holland's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Underachievers' Career Efficacy, Career Identity and Career Barrier processes, Busan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8.
- [20] B. Min, The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 on School Work, Hong Ick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 [21] H. Lee, S. Son, S. Hong,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9, No. 1, pp. 209-238, 2018. DOI: <https://doi.org/10.14816/sky.2018.29.1.209>
- [22] T. E. Duncan, S. C. Duncan, L. A. Strycker,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2006. DOI: <https://doi.org/10.1177/1094428108330225>
- [23] N. L. Galambos, E. T. Barker, D. M. Almeida,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74, No. 2, pp. 578-594, 2003. DOI: <https://doi.org/10.1111/1467-8624.7402017>
- [24] Y. Jeong, C. Bong, S. Hong. "Analyzing Change

- Trajectory an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5, No. 1, pp. 181-210, Jan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1.25.1.181>
- [25]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26] J. L. Arbuckle,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 277, 1996.
- [27] J. H. Bray, G. J. Adams, J. G. Getz, A. McQueen, “Individuation, peers, and adolescent alcohol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1, No. 3, pp. 553-564,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71.3.553>
- [28] H. C. Lee, S. B. Choi, “The Longitudinal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Youth: Focusing on 2003~2007”, *Social Science Studies*, Vol. 51, No. 2, pp. 159-187, 2012.
- [29] H. K. Kang, “The Impact of a Parental Support and a Self-actualization Need on an Academic Satisfaction and a Psychological Euphoria”, *Forum for Youth Culture*, Vol.43, pp. 7-30, 2015.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5.07.43.7>
- [30] N. Y. Kim, J. Tak, “Analyses of Korea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Based on Age and Sex”.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5, No. 7, pp. 119-143, June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7.25.7.119>
- [31] A. R. Han. “The Effect of Parental Life Satisfaction, Positive Parenting, Self-esteem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Ordinary-Income of the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5, No. 5, pp. 1-24.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5.25.5.1>

---

김 선 아(Sunah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School of Social Work, MSW(사회복지학 석사)
- 2000년 5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교육융합연구